월요광장

부끄러움, 잃어버린 인간의 조건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세상이 왜 이 지경인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분노의 탄식이 너무나 무겁고 깊다. 매일 터져 나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참담해서 기가 막힌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법 없이도 서로가 지켜야 하는 정도와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엄연히 한 나라, 같은 시대를 살아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써 지키고자 하는 사회적 불문율과 윤리는 물론이고 법마저도 농락과 비웃음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이들 탓에 보통 사람들이 애써 지켜 내려는 삶의 의미는 뿌리째 뒤흔들리고 매일매일이 이보다 더 외설스럽고 모멸적일 수가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종'에 속한다는 현실에 대한 민망함과 치욕감에서 생겨나는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에게만 있는 감정이다. 부끄러움은 반성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과 결과로서만 생긴다. 외부의 비판이 있든 없든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성찰의 표식이다. 이런 이유에서 동물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부끄러움은 오래전부터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였다. 서양 철학의 기초를 세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B.C. 428-348)은 '고르기아스'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덕목인가를 보여 준다. '고르기아스'는 당시 실존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은 제목으로,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의 핵심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가 하는 물음이다.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이다.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이유는 삶과 앎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표면과 이면이 왜곡되지 않으며,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거짓의 아첨보다 진실이 더 중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법이 법을 어기는 것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여서, 소크라테스에게 부당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제자들은 외국으로 도망칠 것을 간곡하게 권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보이는 원칙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따르지 않은 사람이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행여 누구라는 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서 얼굴을 꽁꽁 가리고 한밤중에 달아나려다 붙잡힌 사람이 한때 이 나라의 법을 다루던 최고위 공직자였다는 사실이 이렇게 참담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직접 본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무분별하고 비겁한 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죽는 것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한다네." 그렇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는 성찰은 사람에게만 있는 능력이다. 나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불의를 저지르고도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나쁜 짓을 한 것보다 묵인하는 것이 더 뻔뻔스러운 불의라는 것이다.

불의를 당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몰염치가 사회 곳곳에서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 슬프다는 어느 여검사의 말이 너무나 아프다. 생각하면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이 경악할 일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씨를 뿌렸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모든 추악함은, 성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딛고 서는 것이고, 남보다 긴 소유 목록이며, 좋은 삶은 노력보다는 한방으로 끝내는 대박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청구서가 아닐까.

누구나 사람이라는 증표로서의 부끄러움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 안의 과시와 허세 그리고 돈과 권력을 향한 광기의 폭주를 절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던져 버린 삶은 누구에게나 깊고 깊은 치욕으로 되돌아온다. 모두가 부끄러움의 감정을 회복해야 할 시간이다.

법조칼럼

KTX 송정역,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이정훈
변호사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광주공항과 함께 광주의 주요 교통 관문이 된 KTX 송정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당초 광주시는 서희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복합 환승 센터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환승 주차장 임대료를 두고 부지 소유자인 코레일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서희건설은 2018년 2월 사업성이 없다면서 복합 환승 센터 사업을 포기해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 여론은 광주시의 협상 부족,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정무적 노력 부족, 정부 등 중앙 행정 기관의 관심 부족 등을 사업 무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송정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복합 환승 센터 사업 실패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복합 환승 센터가 무엇인가? 송정역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으나 그 중 복합 환승 센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어 보인다. 복합 환승 센터는 광주시가 임의로 네이밍을 해 진행한 것이 아니다.

복합 환승 센터는 기존의 환승 시설에 상업, 업무, 문화, 주거기능을 더한 시설로서 공항, 항만, 철도, 버스, 지하철역을 한 곳으로 모아 평균 환승거리를 285m에서 150m 이하로 줄여 환승 시간을 2분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며 이를 통해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설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국가 통합 교통 체계 효율화법 개정 때 이를 도입했다.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라데팡스와 파리 중심부인 샤뜰레 레알지구에 복합 환승 센터가 있으며, 이외에도 독일 베를린 중앙역, 스페인 마드리드 아토차역, 미국 뉴욕 펜역, 일본 요코하마시 신요코하마역 등이 대표적인 복합 환승 센터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제1차 복합 환승 센터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할 때 시범 사업지 8곳 중 하나로 광주역을 포함시켰고, 2016년 제2차 개발 기본 계획에 광주권 2곳을 지정하였다.

현재 광주 이외에도 부산 동래역이 2016년 12월, 전북 익산역이 2014년 수익성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부산 부전역 또한 KTX 정차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복합 환승 센터 개발 계획이 답보 상태다. 즉, 광주 송정역 복합 환승 센터 개발 사업이 무산된 주요 원인은 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서다.

하지만 최근 송정역 근처의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을 인근 빛그린 산단으로 이전하면 충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해 보이고 경제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합 환승 센터 사업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광주 송정역에 복합 환승 센터를 개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광주 광산권에 교통 거점, 문화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다. 광주의 주요 문화 시설 및 교통 시설이 동구 금남로 일대와 서구 상무 지구, 광천동 일원에 편중되어 있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시 생길 솔마루 시티와 차량으로 2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첨단 수완지구의 인근 주민을 위한 교통 거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광주 광산권의 시외버스 터미널 역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 송정역의 편의 시설은 유스퀘어 광천터미널을 참고하여 필수적인 부분을 반드시 구비해야 할 것이다. 유스퀘어 광천터미널은 쇼핑, 식당가, 영화관은 물론 인근에 의료 시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춰 광주시민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다. 꾸준한 관리와 개선 덕분이다. 필자도 고속버스 이용보다는 쇼핑이나 가족 외식, 독서 등의 목적으로 유스퀘어 광천터미널을 더 자주 이용하고 있다.

필자의 지인들도 광주에 내려올 때 유스퀘어 광천터미널을 보고 도시 이미지가 참 세련된 것 같다며 광주와 광주시민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곤 한다. 하지만 어떤 지인은 KTX 송정역에서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배웅을 나온 필자에게 많은 이용객에 비해 편의 시설이 전혀 없고 아직도 시골 같다고 광주에 대한 인상을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KTX 송정역 개발 사업은 광주 및 광주시민의 이미지 개선 및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쪼록 KTX 송정역에 복합 환승 센터 사업이나 다른 형태의 개발 사업이 잘 이뤄져 향후 유스퀘어 광천터미널과 함께 광주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

기 고

자기가 결정하는 행복한 인생

조지현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어머니의 뜻대로, 어머니의 조언대로 평생 살아왔던 주인공은 50살이 넘도록 혼자서는 아무 것도 결정을 못 하는 자신에 대해 자책하며 이렇게 오열한다. "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해법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전국 1등까지 했고, 어머니가 의대 가라고 해서 의사 되었고, 어머니가 병원장 되라고 해서 그거 해보려고 기를 쓰다가 내 새끼인 줄도 모르고 죽였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삶에 대해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수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한 후,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하나 해 나가는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크게 낙담하거나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돌아보며 좀 더 나은 방안을 다시 선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혹은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4년간 별로 행복하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내며 특별한 목적 없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님을 비롯한 남 탓을 하며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 심리에 대한 여러 이론 중 에드워드 데시(Edward L. Deci)와 리처드 라이언(Richard M. Ryan)이 1970년대에 제시한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그들은 '소마(Soma) 퍼즐 실험'을 통해 자기 결정 이론을 정립했는데, 대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퍼즐을 풀게 했다. 한 그룹은 형상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1달러씩 보상을 했고, 다른 그룹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상 없이 퍼즐 자체를 즐긴 그룹 학생들의 몰입도가 더 높고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자율성이며 외적 동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한 자발적 선택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놀이를 할까?'와 같이 작은 일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하게 되면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심하여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 복지 현장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은 중요하다. 사회 복지사 윤리 강령 중 클라이언트와 관계에 대한 윤리 기준의 하나로 "사회 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이란 사회 복지 실천 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의 대상자이지만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 지니고 있는 자원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여러 연구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설령 장애가 있을지라도- 자기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며 자기 결정권은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때 사회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제시하여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더 많이 확보해 주는 방식으로 돕는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준 다음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 선택할 수 있다.

社 說

역사성 잘 살려 5월 정신 계승의 공간으로

옛 전남도청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던 상징적 공간이다. 하지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조성 과정에서 원래 모습을 상당 부분 잃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나마 광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월 당시 모습대로 복원하기로 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엊그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 계획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본관과 별관, 회의실, 도 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동의 원형 복원 방침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자리했던 도청 본관 1층 서무과를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 수습대책위원회가 있었던 2층 부지사실도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을 철거하고 당시 모습으로 복원한다.

건물의 절반이 잘려 나간 채 현재 문화전당 주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도청 별관 역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다. 1~2층은 계속 전당 출입구로 남겨 두고 3~4층만 복원하기로 했다. 도 경찰국 전면의 방문자센터와 후면 철골 구조물은 철거된다. 사라진 회의실~본관~별관 통로도 다시 복구된다.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은 5·18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다. 하지만 문화전당 건립 당시 별관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돼 5월 단체들이 2년 동안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항쟁 거점이었던 상황실과 방송실 등도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이는 모두 역사성에 대한 고려 부족 때문이다. 현장을 그대로 지켜 내야 생생한 역사를 만날 수 있고, 원형이 있어야 진실도 정확히 알릴 수 있다. 어렵사리 원형 복원이 결정된 만큼 역사성을 제대로 살려 5월 정신을 배우고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읍참마속? 부실 검증이 '인사 참사' 초래했다

국정 쇄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3·8 개각이 부실 검증으로 인한 '인사 참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서민 정서에 반하는 인사를 지명함으로써 정국 반전은 커녕 오히려 스스로 발목이 잡힌 꼴이다.

먼저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주 '고가 건물 매입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다. 들끓는 민심에 김 대변인이 즉각 퇴진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어제 자진 사퇴했다. 부동산과 전쟁을 불사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주택 정책의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고의 '알짜배기 땅'이라는 강남·분당·세종에 집을 세 채나 보유한 인물이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됐다.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부인을 동반한 잦은 외유성 출장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사유가 된 해외 부실 학회 참석과 관련해 "본인이 밝히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다주택 보유자'를 주택 정책 주무 장관에 임명한 것 역시 청와대 인사 라인의 '서민 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친 일곱 명의 장관 후보자 중 앞으로 몇 명이나 임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여론에 몰린 억지 읍참마속(泣斬馬謖)으로 몇몇 후보를 걸러 내는 데 그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가 오만에 빠진 건 아닌지, 인사 검증 잣대가 내 편에만 관대한 건 아닌지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외로움부 장관'

정부 조직 가운데 '외로움부'라는 행정 부처가 있는 나라가 있다. 한때는 산업 혁명을 이끌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의 얘기다. 지난해 1월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는 이색적인 각료를 임명했다. "외로움부 장관으로 트레이시 크라우치를 임명합니다. 그녀는 영국 정부가 주요 의제로 삼은 '외로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영국 정부가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게 된 데는 조 콕스라는 하원 의원의 노력이 있었다. 그녀는 의원 생활을 하며 고립된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16년 브렉시트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참가했다가 극우 성향의 남성에게 피살되고 만다. 이후 영국은 그녀의 뜻을 살리기 위해 '조 콕스 외로움 위원회'를 결성하고 외로움 문제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내년부터 1만 명씩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후 감소 폭이 확대돼, 2067년에는 3365만 명까지 줄어 1972년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87명으로 떨어져, 본격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하는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013년 1200명에서 2017년 2000명을 선회할 만큼 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 가운데 50대와 60대 무연고 사망이 절반을 넘는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사회 문제다.

영국이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외로움이 개인적 불행에서 사회적 전염병으로 확산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급증과 출산 기피 또한 향후 외로움이 감정 차원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인구 대책 못지않게 다가올 무연(無緣)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중세 명언으로 '혼자인 사람은 신이거나 아니면 악마다'라는 말이 있다.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사회적 질병'이라는 의미가 아닐는지.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